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국제학술대회

학술대회 제2일차 제2발표

중국 당(唐)대 제릉과 그 유산적 가치

陳凌(Chen Ling) 북경대학교 교수

중국 당(唐)대 제릉과 그 유산적 가치

천 링 북경대학교 교수

2014년, 제38회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중국과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이 공동으로 제출한 '실크로드: 장안-톈산 회랑 도로망'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었다. 이로써 중국은 47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실크로드는 초국가연속유산으로 경로유산에 속한다. 그 길이는 약 8700km에 이르며, 총 33곳의 다양한 유적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 중국에 22곳의 고고학, 고건축 등의 유적이 위치해 있는데, 하남성(河南省) 4곳, 섬서성(陕西省) 7곳, 감숙성(甘肅省) 5곳, 신장 위구르 자치구(新疆維吾爾自治區)에 6곳이 있다..

실크로드는 동서양이 융합하고 교류하는 소통의 길로, 약 2000년 동안 인류의 번영을 위하여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기원전 2세기부터 16세기에 있었던 유라시아 경제, 문화, 사회 발전의 교류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목 문명과 농경 문명 간의 교류가 이를 잘 증명해준다. 장거리 무역으로 발전한 소도시와 도시, 수리 관리 시스템이 뒷받침한 운송 무역 등도 좋은 예다. 실크로드는 장건(張騫)의 서역 원정 등 중대한 역사적 사건과 깊은 관계가 있다. 불교, 마니교, 배화교, 조로아스터교와 같은 종교와 도시계획 구상 등이 고대 중국과 중앙아시아 등지에 전파된 사실 또한 이를 반영한다.

필자는 일부 고분만이 실크로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후에 대한 인간의 상상이 담겨 있는 고분, 특히 제왕과 같은 높은 신분의 사람이 묻혀있는 고분 안에는 다량의 문화 적 정보가 담겨 있다. 이러한 고분들의 가치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는 일은 일반인들이 실크로드 세계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는 데 분명 도움이 된다.

1

실크로드가 가장 번성했던 황금기는 바로 당대(唐代)이다. 제국의 통치자로서 당의 군주는 실크로드를 추진하고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당 왕조와 거의 동시대에 있었던 돌궐 칸국은 일찍이 유라시아 초원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통치자'였다. 필자는 당의 군주와 돌궐 칸(khan)의 능묘(陵墓)를 선택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실크로드의 중요한 가치를 고찰하고 고증 해석하려 한다.

당(唐) 황제 20명 중 18명은 섬서성에 묻혀 있고, 1명(소종, 昭宗)은 하남성에 다른 1명(애

제, 哀帝)은 산동성에 묻혀 있다. 섬서성의 '18좌 당 제릉(唐帝陵)'은 섬서성 관중(關中) 지역 웨이허 강(渭河) 북건현(北乾縣), 예천(禮泉), 경양(涇陽), 삼원(三原), 부평(富平), 포성(蒲城)의 6개 현에 분포하고 있어 이를 '관중 18릉'이라 부른다.

당 18릉 중 태종 소릉(太宗昭陵)과 고종 건릉(高宗乾陵)에는 왕실을 호위하는 신하인 번신(藩臣) 의 석상이 세워져 있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바다. 이에 예로부터 많은 문인들이 소릉의 여섯 마리 준마를 뜻하는 '소릉 육마(昭陵六駿)'를 시로 지어 노래하기도 했다.

반면 당 왕릉 번신(藩臣) 석상의 출처와 의의에 관한 토론은 그다지 많지 않다. 필자는 당 왕릉 번신(藩臣) 석상의 설치가 당 왕조와 돌궐 사이의 문화 교류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나라 이후 중국 황제릉은 대체로 신도(神道)위에 능묘를 지키는 무인석 옹중(翁仲)과 각종 신수(神獸)들을 배치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런데 사실 제릉에 설치하는 변방 제후국의 신하를 뜻하는 번신상(藩臣像)은 이미 당 태종 소릉에 도입한 제도이다.

소릉원(昭陵園) 안에 놓여있는 14번 군장 석상(十四蕃君长石像)과 북사마문(北司馬門)에 설치된 육마(六駿)가 당 능원(陵園)에 쌍으로 열 지어 세우는 번추(蕃酋) 석상과 북신문(北神門) 밖에 설치하는 장마(仗馬) 의 선례를 열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릉과 건릉에만 번신 석인상(石人像)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당릉(唐陵)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는 대부분의 당 황제릉에 번신 석상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릉(唐陵) 소수민족 우두머리 석상(蕃酋)은 일반적으로 신도(神道) 석각(石刻)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다. 후대 당릉은 소릉에 번신상(蕃臣像)을 세우는 제도를 이어가지만 위치는 조금

	묘호 (廟號, 임금의 시호)	능(陵)	번신상(蕃臣像)
1	고조 (高祖)	헌릉 (獻陵)	×
2	태종 (太宗)	소릉 (昭陵)	√
3	고종, 측천무후(高宗, 則天武后)	건릉 (乾陵)	√
4	중종 (中宗)	정릉 (定陵)	√
5	예종 (睿宗)	교릉 (橋陵)	√
6	현종 (玄宗)	태릉 (泰陵)	√
7	숙종 (肅宗)	건릉 (建陵)	√
8	대종 (代宗)	원릉 (元陵)	?
9	덕종 (德宗)	숭릉 (崇陵)	√
10	순종 (順宗)	풍릉 (豊陵)	?
11	헌종 (憲宗)	경릉 (景陵)	?
12	목종 (穆宗)	광릉 (光陵)	?
13	경종 (敬宗)	장릉 (莊陵)	√
14	문종 (文宗)	장릉 (章陵)	?
15	무종 (武宗)	단릉 (端陵)	?
16	선종 (宣宗)	정릉 (貞陵)	?
17	의종 (懿宗)	간릉 (簡陵)	√
18	희종 (僖宗)	정릉 (靖陵)	?

달라진다. 즉 번신상은 북사마문 밖에서 주작문(硃雀門) 밖에 있는 신도(神道) 북측으로 이동하고, 옹중(翁仲)과 신수(神獸) 계열의 일부가 된다. 비록 중종 정릉, 예종 교릉, 숙종 건릉, 덕종 숭릉, 경종 장릉 등지의 번신 석상 방향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번신상은 옹중과 마찬가지로 신도(神道) 북단에 동서향 방향으로 나열된다.

	현존 수량	위 치	방 향
태종 소릉(太宗 昭陵)	14	북사마문(北司馬門)	?
고종 건릉(高宗 乾陵)	61	주작문(硃雀門) 궐 북 신도(神道) 양측	동, 서
중종 정릉(中宗 定陵)	2	유대(乳台, 제왕의 선릉 의장물) 이 궐 유적의 북쪽	?
예종 교릉(睿宗 橋陵)	?	?	?
숙종 건릉(肅宗 建陵)	?	?	?
현종 태릉(玄宗 泰陵)	1	남신문(南神門) 밖 서쪽 열	동
덕종 숭릉(德宗 崇陵)	?	주작문(硃雀門) 밖	?
경종 장릉(敬宗 莊陵)	8	남, 동남, 신도(神道) 석각 북측	?
의종 간릉(懿宗 簡陵)	2	신도(神道) 북측	서

건릉 석인(乾陵石人)을 당 고종의 장례를 돕는 번신(蕃臣)으로 바라보는 것이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견해다. 필자는 당릉에 번신상(蕃臣象)을 설치하는 것이 태종 소릉에서 시작되기는 했지만, 후대에도 계속 그 방법을 사용해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건릉 석인의 의의를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 우리는 그 원형인 소릉부터 살펴봐야 한다.

소릉에 번신 석상을 설치한 취지는『당회요(唐會要)』에 상세히 풀이되어 있다.『당회요』권 20『능의(陵议)』편에 '당 고종(唐高宗)은 선대 황제의 훌륭한 공덕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장인에게 돌을 다듬게 하고, 여러 소수민족 군장에 대해 적게 하였다. 정관(貞觀) 중기에 투항하여 귀화한 자들의 형상과 그 관직명을 새긴다.'라고 적혀 있다. 건릉 석인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도 바로 이와 같다. 후대 여러 제릉(帝陵)에 계속 번신상(蕃臣象)이 세워지지만 아마도 대부분은 형식적인 제도적 관습에 그쳤을 뿐, 본래 갖고 있던 취지는 사라졌을 것이다.

투항한 귀화자의 석상을 무덤 앞에 세우는 것은 돌궐의 풍습이다. 이 풍습은 미누신스크 분지 금석병용시대의 오쿠네보 문화(Okunevo culture, 남시베리아 청동기 문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6~8세기 사이에 북방 초원에서 유일하게 돌궐에서만 이 방법이 유행했다. 당릉에 번신 석상을 세우기 시작한 것은 이보다 훨씬 늦다. 그러므로 역사적 배경과 시간의 전후 그리고 구상의 측면에서 살펴보아도 당릉에 세운 번신 석상은 돌궐의 줄돌(殺人石, balbal) 전통을 따랐다고 볼 수 있다.

죽은 자의 무덤 앞에 생전에 죽인 적장의 수만큼 돌을 줄지어 세우는 줄돌(balbal)로써 무덤 주인의 공적을 표시하였는데, 이는 돌궐 고분 문화에서 현저하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돌궐 무덤 앞에 있는 석인은 두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죽은 자를 대표하는 우상(偶像)의 형태로 상당히 정교하게 조각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죽은 자가 생전에 죽인 대상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통 간단하게 돌만 세운다. 후자가 바로 당릉에서 모방한 형태이다.

2

돌궐 제2 칸국 능원(陵園)은 당릉(唐陵) 구조의 영향을 받아, 석인(石人)이 신도(神道) 양측에 배치되어 있다. 이는 돌궐 능원이 한족(漢)에 동화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 외 여러 부분에서도 돌궐 능원의 한족 동화 요소를 찾아볼 수 있다. 사실, 돌궐 능원의 동화 과정은 돌궐 제1 칸국 시기부터 시작되었다.

부그트 비(碑), 닐리 카간 석인(石人), 빌개 카간 비(碑), 퀼테긴 비(碑), 톤유쿠크 비(碑) 등 여러 비문 앞에서 평기와, 와당(瓦當) 조각, 기둥 흔적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흔적들은 비문을 보호하는 비각(碑閣)과 같은 건축물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데, 이러한 방식은 중국 중원(中原) 지역에서 비롯된다.

돌궐 제1 칸국 능원은 현재까지도 중앙에 위치한 신전(獻殿, 제사를 지내는 건축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문헌 기록으로 볼 때, 제1 칸국 시기에 신전은 응당 있어야 한다. 타스파르 카간 능(陵)에는 한나라(漢) 방식을 사용해 만든 거북 모양의 받침돌(龜趺石碑)이 있는데, 이로 살펴보아도 당시 신전을 짓는 건 가능했다. 또 타스파르 카간 능원(陵園) 중앙에 세워져 있는 돌로 둘러싼 무덤 주변에서 소량의 기와 조각이 발견됐다. 이 역시 신전과 관련 있을 것이다. 돌궐 제2 칸국 시기에는 대형 능묘(陵墓) 중앙에 신전을 세우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인데, 일반 고분에는 이러한 신전 건축물이 없다.

중국의 문헌 기록과 돌궐의 비문(碑銘)은 모두 중국 중원의 장인들이 돌궐 제2 칸국 능원(陵園)의 설계와 건설 작업에 참여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퀼테긴 비(碑) 북쪽 면 13 행 에는 '한(漢) 황제의 외삼촌인 장장군(張將軍)이 능묘를 건축한다. 돌에 글을 새기고 그림을 그려 비석의 비문을 갖춘다.'라는 내용이 있고 동북쪽 면 에는 '퀼테긴이 양의 해 17일에 서거하였다. 우리는 9월 27일에 그의 장례를 치렀다. 능묘, 조각, 회화와 비문은 원숭이 해 7월 27일에 완공되었다.'라는 내용이 있다.

빌개 카간 비(碑) 북쪽 면 14행 에는 '그 후, 내가 사람을 보내 한 황제에게 많은 화공과 조각가를 보내 달라고 하였다. 한 황제는 내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궁중 화공을 보내주었다. 나는 그들에게 훌륭한 능묘(陵墓)를 만들어 능묘 안팎에 정교한 그림으로 장식하라고 하였다.'라는 내용이 있다. 퀼리초르 비(碑) 동쪽 면 12행 에 '사람을 시켜 그에게 바치는 초상화도 그리고 비석도 만들라고 하였다.'라는 내용이 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은『수서(隋書)』의 기록에서도 실증된다. 빌개 카간 능에서 발견한 수렵문(狩獵紋) 기와, 퀼테긴 신전(獻殿) 내 부부 좌상, 톤유쿠크 신전 유적에서 출토된 점토 인형 등등. 이것들은 모두 문헌과 비문의 기록을 부분적으로 실증하고 있다.

초기 돌궐 고분의 석각(石刻)은 석인(石人)과 줄돌(殺人石) 두 종류뿐이다. 돌궐 제1 칸국 타스파르 카간 능원부터 한(漢) 방식의 비석과 거북 받침돌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돌궐 귀족

대형 능원의 비석은 모두 등이 휘어있는 거북 받침돌이다. 부그트 비(碑) 머리 부분(碑額, 비액)에는 늑대가 어린 남자아이를 젖먹이는 그림이 있는데, 그 외의 것은 모두 한나라 방식의 뿔 없는 용 무늬이다.

제2 칸국에 들어서자 돌궐 대형 귀족 묘는 한발 더 나아가 중원 지역의 옹중(翁仲)과 석양(石羊) 등 석상생(石像生)을 도입한다. 돌궐 대형 능묘들이 중원에서 건축하는 신전을 모방한 후부터 무덤의 주인을 상징하는 석인(石人)의 위치도 신전 가운데로 옮겨진다. 퀼테긴 묘 신전에서 출토된 퀼테긴과 그 아내의 두상이 이러한 변화를 증명해주었다.

제2 칸국 대형 귀족 능묘에서 두 번째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바로 능묘와 신전 사이의 신도(神道) 남북 양측에 석인(石人)을 줄지어 세우는 것이다. 이 석인은 무덤 주인을 본뜬 것이 아닌 무덤을 지키는 옹중(翁仲)으로 되어있다. 옹중석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 가슴에 잔, 단지, 사발, 병 등 용기(用器)를 들고 있는 전통 돌궐식 석인(石人) 양식과, 지팡이나 칼을 짚고 있는 추가된 양식이 있다. 퀼테긴 능묘에서 발견된 석인은 짧은 지팡이를 가슴팍에 들고 있었다. 긴 지팡이를 짚고 있는 돌궐인 형상도 판지켄트 벽화에서 볼 수 있다.

석인은 입식과 좌식 두 종류가 있는데 순서 없이 배열되며 명확한 규칙이 없어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 또한 당릉(唐陵)처럼 아주 질서 정연하고 체계적인 것과도 거리가 멀다. 돌궐식, 한나라 방식 두 종류의 석인이 한데 섞여있는 것은 통치자가 돌궐과 한(漢)의 상이한 문화적 요소를 통합하려 했던 노력을 반영하는 것이다. 질서 정연하지 않은 배열은 또한 이러한 통합 과정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3

필자가 고찰한 바에 따르면, 당 군주의 제릉과 돌궐 카간의 릉(陵) 사이에는 '상대를 거울로 삼아 서로 배우는' 매우 흥미로운 관계가 존재한다. 이는 한편으로는 당 이후의 중국 고대 왕조 능묘 방식에 깊은 영향을 주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돌궐 칸릉의 관념과 구도를 바꾸어 그 영향력이 몽고족이 통치한 원나라 시대까지 지속되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필자는 토번(吐蕃)과 고구려 왕릉도 이러한 상호작용의 과정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계는 상이한 민족, 문화, 생산 방식을 보이는 문화교류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농경 문명과 유목 문명의 문화를 이해하며 교류하고 융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또한 실크로드가 문화 소통의 길이라는 진정한 의미도 잘 드러낸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실크로드에 내재되어 있는 유산적 가치와 심도있는 의미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中国唐代帝王陵墓及其遗产价值

陈 凌 北京大学考古文博学院 教授

2014年，第38届世界遗产大会同意中国与吉尔吉斯斯坦、哈萨克斯坦联合提交的“丝绸之路：长安-天山廊道路网”文化遗产申请项目入选《世界遗产名录》。至此，中国的世界遗产数量增至47处。丝绸之路是跨国系列文化遗产，属文化线路类型。它经过的路线长度大约8700公里，包括各类共33处遗迹。其中，中国境内有22处考古遗址、古建筑等遗迹，包括河南省4处、陕西省7处、甘肃省5处、新疆维吾尔自治区6处。

丝绸之路是东西方之间融合、交流和对话之路，近两千年以来为人类的共同繁荣做出了重要的贡献。丝绸之路见证了公元前2世纪至公元16世纪期间，亚欧大陆经济、文化、社会发展之间的交流，尤其是游牧与农耕文明之间的交流；它在长途贸易推动大型城镇和城市发展、水利管理系统支撑交通贸易等方面是一个出色的范例；它与张骞出使西域等重大历史事件直接相关，深刻反映出佛教、摩尼教、拜火教、祆教等宗教和城市规划思想等在古代中国和中亚等地区的传播。

我们注意到，只有个别的墓葬被纳入丝绸之路世界遗产之中。这无疑是很令人遗憾的。作为承载着人们对另一个世界想像的墓葬，特别是帝王一类高等级的墓葬，包含了大量的文化信息。深入地阐释这些墓葬的价值，无疑有利于人们更好地认识丝绸之路世界遗产的价值。

一

唐代是丝绸之路最兴盛的黄金时代。做为帝国的统治者，唐代的君主对于丝绸之路的推动和维护发挥了不可替代的作用。与唐王朝大致同时代的突厥汗国，曾经是欧亚草原上最强有力的统治者。我愿意选择唐代君主和突厥可汗的陵墓来观察和释读其中蕴含的理解丝绸之路的重要价值。

唐代二十个皇帝中有十八位葬于陕西，一位葬于河南（昭宗），一位葬于山东（哀帝）。陕西的十八座唐帝陵分布于关中渭河北乾县、礼泉、泾阳、三原、富平和蒲城六县境内，称“关中十八陵”。唐十八陵中太宗昭陵、高宗乾陵立有蕃臣石像向来为人所熟知，而昭陵六骏历来尤多文人题咏。但唐陵蕃臣石像来源与意义，相关的讨论并不多。我认为，唐陵蕃臣石像之设置与唐王朝和突厥的文化交往有密切的关系。

汉代以后中国的帝陵通常在神道布置有翁仲和各种神兽，但帝陵设置蕃臣像却是唐太宗昭陵引入的新制度。昭陵园中置十四蕃君长石像和北司马门置“六骏”开创了唐陵陵园的石象生中置“蕃酋”石像和北神门外设置仗马的先例。

以前大多认为只有昭、乾二陵立有蕃臣石人像。根据对唐陵的调查发现，实际上唐代帝陵大多都立有蕃臣石像。

	庙 号	陵	蕃臣像
1	高祖	献陵	×
2	太宗	昭陵	√
3	高宗、武后	乾陵	√
4	中宗	定陵	√
5	睿宗	桥陵	√
6	玄宗	泰陵	√
7	肃宗	建陵	√
8	代宗	元陵	?
9	德宗	崇陵	√
10	顺宗	丰陵	?
11	宪宗	景陵	?
12	穆宗	光陵	?
13	敬宗	庄陵	√
14	文宗	章陵	?
15	武宗	端陵	?
16	宣宗	贞陵	?
17	懿宗	简陵	√
18	僖宗	靖陵	?

是唐陵蕃酋石像一般在神道石刻最北部。虽然后来的唐陵承袭了昭陵立蕃臣像的制度，但位置却有所变化。即将蕃臣像从北司马门外改移至朱雀门外神道北侧，变成传统翁仲、神兽序列中的一部分。虽然中宗定陵、睿宗桥陵、肃宗建陵、德宗崇陵、敬宗庄陵等处蕃臣石像的朝向不明，但它们既象翁仲一样列于神道北端，朝向也是东西向。

	现存数目	位 置	朝 向
太宗昭陵	14	北司马门	?
高宗乾陵	61	朱雀门阙北，神道两侧	东、西
中宗定陵	2	乳台二阙遗址以北	?
睿宗桥陵	?	?	?
肃宗建陵	?	?	?
玄宗泰陵	1	南神门外西列	东
德宗崇陵	?	朱雀门外	?
敬宗庄陵	8	南、东南、神道石刻北侧	?
懿宗简陵	2	神道北侧	西

一种流传较久的看法认为乾陵石人是来助唐高宗葬礼的蕃臣。我们认为，唐陵设蕃臣像既然始自太宗昭陵，而为后代所沿用，因此要正确解释乾陵石人的意义，还应该从源头昭陵入手。昭陵设蕃臣像的初衷《唐会要》说得非常清楚。《唐会要》卷二〇《陵议》 “上

（案指唐高宗）欲阐扬先帝徽烈。乃令匠人琢石。写诸蕃君长。贞观中擒伏归化者形状。而刻其官名。” 乾陵石人的含义也当同此。至于后来诸帝陵立蕃臣像，很大程度上可能只是形制上的沿袭，而丧失了原本的意义。

立擒服归化者石像于墓前正是突厥的习俗。这种习俗虽然可以上溯至米努辛斯克盆地金石并用时代的奥库涅夫文化，但六至八世纪间北方草原唯有突厥流行这种作法，唐陵开始立蕃臣像则要晚得多。因此，从无论从历史背景、时间先后，还是从立意上，都可以比较肯定地认为唐陵立蕃臣石像是师法于突厥的杀人石传统。

在死者墓前立杀人石（balbal）以表示其生前战功，这是突厥墓葬习俗显著的特点。突厥墓前石人从性质而言有两类，一类为代表死者本身偶像，这一类往往雕琢相对细致；另一类为代表死者擒杀的对象，通常只是简单立石。后者正是唐陵所要仿效的。

二

第二突厥汗国陵园受唐陵布局的影响，列置石人于神道两侧。这可以视为突厥陵园汉化的一个方面。除此之外，还可以从很多地方看到突厥陵园汉化的因素。事实上，突厥陵园的汉化过程早在第一汗国时期就已经开始了。

在布古特碑、泥利可汗石人、毗伽可汗碑、阙特勤碑、暾欲谷碑等几处碑铭之前都发现有板瓦、筒瓦残片，以及立柱痕迹。这些迹象表明，这几处都设有碑亭一类建筑以遮护碑铭（石人）。这种作法显然源于中原。

第一突厥汗国陵园目前尚未发现中部有献殿的现象。从文献记载来看，第一汗国时期应该也有献殿。从佗钵可汗陵采用汉式的龟趺石碑来看，建献殿是有可能的。在佗钵可汗陵园中部石围墓周围曾经发现过零星瓦片，也许与献殿有关。第二突厥汗国时期大型陵墓中立献殿是普遍现象，普通墓葬中则没有这类建筑。

不论是中国的文献，还是突厥的碑铭，都明确说明中原的工匠参与了突厥第二汗国陵园的规划和建设。《阙特勤碑》北13行：“汉人可汗的皇姨弟张将军，则来建造陵墓，处理雕刻、绘画事宜，以及置备铭文石碑。” 东北面“阙特勤于羊年的十七日去世。我们在九月二十七日举行他的葬礼。其陵墓、雕刻、绘画和碑铭峻工于猴年七月二十七日。”《毗伽可汗碑》北14行“此后，我遣人从汉人可汗那里召来许多画师和雕匠。汉人可汗并未拒绝我的要求，派来了宫廷画师。我令他们建造了一座非凡的陵墓，在（陵墓的）内外都装饰了精妙的绘画。”《阙利啜碑》东12行“（并让人为他）画了像，立了碑”。以上这些都可以和《隋书》的记载相补充印证。毗伽可汗陵发现的狩猎纹瓦、阙特勤献殿内夫妇坐像、暾欲谷献殿遗址中出土的泥塑等等，也从一定程度上证实了文献和碑铭的记载。

早期突厥墓葬石刻只有石人和杀人石两种，自第一汗国佗钵可汗陵园开始引入汉式的石碑和龟趺。突厥大型贵族陵园石碑都驼以龟趺。除布古特碑碑额为狼哺男童图像外，其余均为汉式盘螭纹。到第二汗国，突厥大型贵族墓又进一步引入中原的翁仲、石羊等石象生。

突厥大型陵墓模仿中原建献殿以后，代表墓主的石人的位置也就相应地移入献殿中。阙特勤墓献殿中出土阙特勤及其妻子的头像证实了这种变化。

第二汗国大陵贵族陵墓另外一个重要的改变是，在陵墓入至献殿之间的神道南北两侧列立石人。这些石人显然不是墓主，而是翁仲。石翁仲的样式，除了胸前持容器（杯、罐、钵、瓶等）这种传统的突厥式的石人外，还新增了持杖或拄刀的样式。在阙特勤陵园发现过一件石人，手持短杖于胸前。 持长杖的突厥人形象还见于片治肯特壁画中。石人有立式、坐式两种，错杂排列，且看不出明确的规则，呈现出一种混杂的状态，还远没有达到象唐陵那么规整和成系统。突厥、汉式两种石人相错杂，反映了其统治者整合突厥与汉两种不同文化因素的努力；而序列的不规整，又表明这一整合过程尚处在不成熟的初步阶段。

三

根据我的观察，唐代君主的帝陵和突厥可汗的汗陵之间，存在极为有趣的相互学习借鉴关系。这一方面深刻影响了唐以后中国历代王朝陵墓的格局，另一方面也改变了突厥汗陵的理念和布局，并持续到了蒙元时代。不仅如此，我同样注意到吐蕃、高句丽的王陵同样参与到这一互动过程之中。

这是不同族群、不同文化、不同生业模式之间文化交流中极为重要的内容，对理解农耕和游牧文明之间文化观念的交流和融合是非常有价值的，也彰显了丝绸之路是文化对话之路的真正内涵。这种互动过程，让我们看到丝绸之路遗产价值中隐性而又深刻的一面。

「중국 당(唐)대 제릉과 그 유산적 가치」에 대한 토론문

신 희 권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한반도 남부에 자리한 가야 제국의 영역 내에는 780여 개소의 고분군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들 고분군 내에 분포하는 고분의 수는 수십만 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고분군들은 기원을 전후한 시기부터 대가야가 멸망하는 562년까지 고구려 · 백제 · 신라와 공존하면서 가야 문화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가야 고분은 기록이 턱없이 부족한 가야의 역사를 고고학적으로 증명해 줌으로써 가야의 실체와 문화적 특성을 입증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가치가 인정되기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자 하는 노력을 범국가적으로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본 학술대회의 목적 또한 세계유산적 관점에서 각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가야 고분의 역사 ·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세계유산 등재 추진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도출해 내는 데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토론자로서 발표자에게 가야 고분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발표자는 능제의 특성에서 석물의 배치와 헌전의 건립 등의 측면에서 당 황제릉과 돌궐 칸릉 사이에 상호 영향이 있었음을 피력하였다. 또한 이러한 관계는 당 이후 중국 역대 왕조 능묘의 품격과 배치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돌궐 칸릉의 이념과 배치에 변화를 주어 몽원시대까지 유지되었다고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토번, 고구려의 왕릉 또한 이러한 상호 과정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족군, 문화, 생계 양식간의 문화 교류 내용이야말로 실크로드가 가지는 진정한 숨은 가치라고 그 의미를 역설하였다.

이러한 가치는 세계유산 등재기준 ⅱ)[오랜 기간에 걸쳐서 혹은 세계의 특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기념비적인 미술품 제작, 도시 계획 혹은 조경 디자인 등의 발전에 관한 인간 가치의 중요한 상호 작용을 잘 보여주는 것]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록 당대 황제릉과 같은 규격과 석물 배치 등의 특징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가야 고분이 가지는 동아시아 묘제의 위치와 교류적 관점에서의 역할이 어떠하다고 보시는지 발표자의 고견을 듣고 싶다.

가야 제국의 역사 또는 가야 문화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물적 증거로서의 가야 고분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자 하는 각 지자체의 의지와 노력은 높이 살만 하다. 이에 가야 고분이 지니고 있는 묘제적 특징이나 유적의 입지 · 경관적 특성, 유물 부장 등에서 엿보이는 가야 문명의 제 측면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가야 고분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제대로 부각함으로써 조만간 가야 고분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중국 당(唐)대 제릉과 그 유산적 가치」에 대한 토론문

정 재 훈 경상대학교 교수

陳凌 교수의 발표문은 당대 제릉에 보이는 문화 교류 양상을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것을 통해 이것이 실크로드 문화 유산으로서 어떤 의의를 갖고 있는가 하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다. 진교수는 먼저 돌궐 묘제의 석인이 당 제릉에 남아 있는 蕃臣石人像 제작에 끼친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6세기 중반 돌궐제국의 등장 이후 중국과의 관계가 본격화되면서 문화적인 교류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양자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7세기 후반 돌궐이 부흥한 이후 당조의 영향을 받아 사당과 같은 건물과 제릉에 보이는 석물이 제작하는 묘제가 돌궐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당 제릉과 돌궐 묘제의 상호 영향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발표문을 읽으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내용에 대한 의문이 들어 질문을 해보려고 한다.

1. 돌궐 묘제의 당 제릉에 대한 영향이 그 이전 북조 시대와 수대의 제릉에 나타나지 않다가 당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당 제릉의 양상은 북조 이래 기존의 제릉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발전을 했는가 하는 점이 보다 중요한데, 단지 석인의 존재만으로 당 제릉의 성격에 돌궐의 영향을 설명하기엔 부족하다. 중요한 분석 대상인 6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부구트 유적엔 귀부와 석비가 있지만 돌궐 묘제에서 중요한 묘주의 석인이 없고 단지 발발만이 있을 뿐이다. 이것은 전형적 돌궐의 묘제라기 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오히려 당조 성립 이전 북조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양상과 당 제릉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더 구체화했으면 한다.
2. 680년대 후반 돌궐이 당조의 羈縻支配에서 벗어나 다시 몽골 초원으로 돌아가게 된 이후 돌궐의 묘제에 당 제릉의 양식이 일부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점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하지만 당의 묘제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은 이해되나 개별 묘제는 다양한 양상으로 돌궐적 특징을 보여주는 것도 있다. 빌게 카간이나 퀼 테긴의 묘제의 경우엔 당조의 기술자가 제작함에 따라 그의 영향이 아니라 그의 양식에 따라 제작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별 묘제에 대한 당조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 의미를 지적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미 日本의 林俊雄가 정리한 것처럼 돌궐의 묘제는 유적에 따라 개별적 양상에 다양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단순하게 당조와 돌궐이라는 두 가지의 대립적인 문화 비교 정도로 설명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결론에서 농경과 유목 문명이 융합하는 것이 실크로드 문화의 진정한 함의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면 한다. 왜냐하면 발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 실크로드의 가치를 두 세계의 융합이라는 점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진교수가 설정한 실크로드의 의미와 성격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이다.